

## ‘수비수만 11명’ 흥명보호... 브라질 상대로 ‘스리백’ 시험대

흥명보호가 ‘세계 최강’ 브라질을 상대로 수비수 11명을 차출하며 ‘스리백 전술’ 굳히기에 나섰다.

흥명보 감독은 29일 서울 중로구 축구회관에서 10월 A매치 홈 2연전에 나설 26명의 대극전사를 발표했다.

한국은 10월10일 오후 8시 브라질, 14일 오후 8시 파라과이(이상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맞대결을 벌인다. 이번 소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11명의 수비수다.

지난 9월 A매치 당시 미드필더 명단에 올랐던 정상빈(세인트루이스)과 박진섭(전북)이 수비수로 분류됐다.

정상빈은 소속팀에서 측면 공격수로 뛰지만, 9월 멕시코와의 평가전에서 풀백으로 활약했다.

박진섭도 전북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서지만 스리백 중앙 수비수 중 한 명으로 설 수 있는 멀티자원이자다.

흥 감독은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상빈과 박진섭은 둘 다 멀티 능력이 있는 선수다. 정상빈은 원포워드와 윙백도 할 수 있고, 박진섭은 중앙 수비수도 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둘을 미드필더가 아닌 수비수로 분류한 건 지난 9월 미국 원정에서 미국(2-0 승), 멕시코(2-2 무)를 상대로 성과를 본 스리백 전술을 플랜A로 굳히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흥 감독은 “플랜A로 정해진 이르다”면서도 “전술은 감독의 철학뿐 아니라 선수 구성도 관련이 있다. 브라질을 상대로 이 전술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실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는 수비수 김민재를 중심으로 한 스리백은 흥 감독이 본선 무대를 대비한 필살기로 평가된다.

월드컵에서 만날 세계적인 강호들을 상대로 뒷문을 강화하고, 역습 상황에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흥명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9일 오후 서울 중로구 축구회관에서 10월 A매치 소집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오는 10월 6일 소집돼 10월 10일 오후 8시 브라질, 14일 오후 8시 파라과이와 친선경기를 치른다. /뉴스1

### ‘잉어’ 정상빈·‘수비형 미드필더’ 박진섭, 수비수 분류

### 흥명보 감독 “강호 브라질 상대로 효율성 확인 필요”

실제로 흥 감독은 북중미행을 확정된 뒤 7월 K리그와 J리그로만 멤버를 꾸린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부터 스리백을 시험했다.

이어 미국 원정에서 김민재, 이한범(미트윌란), 김주성(산프레체히로시마) 등 해외파의 가세로 완성도가 높아졌다.

특히 김민재는 스리백의 가운데 서서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 상대의 뒷공간 침투를 적절히 차단했다.

물론 숙제도 남았다. 후반 막판 밀리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내려앉아 상대에게 슈팅 공간을 내주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지곤 했다.

히샤를리송(토트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레알 마드리드), 하피냐(바르셀로나)

등 세계적인 골잡이를 보유한 브라질은 미국, 멕시코보다 더 힘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들을 상대로 스리백이 또 한번 가능성은 보인다. 본선에서의 경쟁력은 올라갈 수 있다.

‘중원 사령관’ 황인범(예레노르트)의 복귀도 스리백 전술에 힘이 될 전망이다.

박용우(아야인)가 무릎 부상으로 이탈했으나, 황인범과 ‘혼혈 파이터’ 엔스 카스트로프(뮌헨글라트바흐)가 벨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뉴스1



제2회 보성군수배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 성료. 보성군은 지난 9월 27-28일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제2회 보성군수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 제2회 보성군수배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 성료 제암산의 레포츠 숲길을 달리다!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제암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열린 ‘제2회 보성군수배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가 전국에서 모인 선수·동호인과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국산악자전거연맹이 주최·주관했다. 대회 분야는 ▲다운힐(DH), ▲크로스컨트리(XC) 경쟁, ▲국민라이딩 비경쟁으로 기획됐으나, 국민라이딩은 우천으로 인한 안전 우려로 취소됐다.

경쟁 부문인 크로스컨트리 경기는 수준 높은 기량을 뽐내는 치열한 경주가 이어졌다. 특히, 제암산자연휴양림과 일림산 임도를 경유하는 코스는 천혜의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 참가자들로부터 ‘스릴과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코스’라는 호평을 받았다.

경기 결과, 다운힐(DH) 부문에서

는 마르(MTB)레이싱의 박종운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크로스컨트리(XC) 부문은 나이와 등급별로 나눠 치러져 남자고등부 방준영 선수(김천생명과학고), 남자중등부 김지후 선수(마르 MTB레이싱), 베테랑부 정용진 선수(DYO), 여성부 이문숙 선수(개인) 등이 각각 정상에 올랐다.

대회 기간에 제암산자연휴양림의 숙박·체험시설과 더듬길을 찾은 참가자와 가족들이 많았으며, 인근 숙박업소와 음식점도 활기를 띠는 등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의 열정과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힘써주신 한국산악자전거연맹 관계자들의 노고 덕분에 무사히 대회를 마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보성 산악자전거대회를 지역 대표 친환경 스포츠 축제로 지속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윤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I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력을 유기 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키퍼스테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중외공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시공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 GS건설 (이)한화/건설 HDC엔지니어링

## 한계·도전 겨냥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폐막

### 47개국 443명 7일간 열전... 광주시청 김옥금 선수 금메달 획득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28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결승전을 끝으로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결승전은 9월 한달 동안 광주에서 열린 ▲세계양궁연맹총회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로 이어진 ‘3대 양궁 국제행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광주시는 국제스포츠 중심도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대회는 총 47개국 443명의 선수들이 리커브, 컴파운드, W1(중증장애), VI(시각장애) 등 17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다. 특히 중국 선수단은 리커브 여자 오픈과 혼성 종목에서 연이어 세계신기록을 경신하며 대회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금1, 은1, 동4개 등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광주광역시청 소속 김옥금 선수가 W1 단체 금메달과 혼성 동메달을 따내며 광주 양궁의 위상을 높였다. 또 국내 시각장애인 선수가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역사를 썼다.

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장애인 선수단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할랄·비건 메뉴를 포함한 경기장 출장 뷔페를 운영하고, 휠체어 리프트 차량, 사위 보조 의자, 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제공을 통해 이동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 경기장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확충하고, 휠체어 이동 편의를 위해 슈팅라인에 매트를 설치하는 등 선수 친화적 환경을 조성했다. 결승전 관람석 일부를 휠체어석으로 개편하고, 이동통로 확장, 경사로 및 몽골텐트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 관람객 편의도 높였다.

친환경 운영을 위해 다회용컵 사용과 환경 체험부스를 운영했으며,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을 통해 폐우와 우간다 선수 2명에게 장비와 기술을 지원해 국제적 연대의 가치를 실현했다.

결승전이 열린 5·18민주광장은 광주의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상징적 공간으로 주목받았다. 선수단과 관람객은 전일빌딩 245, 5·18시계탑, 옛 도청 분수대 등을 방문하며 광주의 민주화 역사를 체험했다.

/김명수 기자

## 담양군, 제4회 무등산권 지오마라톤 대회 개최

### 시상금 지역상품권 지급, 지역 소비 촉진과 경제 활력 도모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기념하는 제4회 무등산권 지오마라톤 대회가 오는 10월 11일 오전 8시 금호·화산리조트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담양군과 광주문화방송,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화산군이 공동 주최하며, 5·18 45주년을 기념해 전국의 달림이 1,450명이 참여한다. 코스는 30km, 하프, 10km, 5.18km, 2km 걷기 등으로 구성됐으며, 30km 코스는 금호·화산리조트를 출발해 가사문학관 인암삼거리와 화산군 백이면 다곡삼거리 반환점을 거쳐 돌아오는 구간으로 운영된다.

특히 서유리 공룡화석지를 탐방하는 2km 걷기 ‘지오트레일 코스’는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지오해설사의 설명도 함께 제공된다. 이번 대회는 광주 MBC 지상파 TV와 유튜브를 통해 3시간 생중계되며, 해설은 윤여준 해설위원과 지오마라톤 우승자 로버트 허드슨 홍보대사가 맡는다.

유튜브 중계 중간에는 담양한과와 지오푸드, 화산 오란과자, 광주 주먹밥, 전남 농협 친환경쌀 등 지역 먹거리를 소개한다.

아울러 시상금은 담양과 화산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돼 지역 소비 촉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양/이종욱 기자